

해외 ICT 표준화 동향

2015. 10

4th Week

목 차

■ 본문

1. MEF/ETSI, 캐리어 이더넷 2.0 서비스 표준 개발 협력
2. ITU, 5G 연구 개발 및 표준화 작업에 초점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게시물 보기 : TTA 홈페이지 ▷ 자료마당 ▷ TTA간행물 ▷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1. MEF/ETSI, 캐리어 이더넷 2.0 서비스 표준 개발 협력

(MEF and ETSI NFV ISG Collaborate To Advance NFV For Carrier Ethernet 2.0 Services Enabled By Lifecycle Service Orchestration)

보도날짜 2015.10.08

출 처 ETSI

사 이 트 <http://www.etsi.org/news-events/news/1011-2015-10-news-mef-and-etsi-nfv-isg-collaborate-to-advance-nfv-for-carrier-ethernet-2-0-services-enabled-by-lifecycle-service-orchestration>

- ETSI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(NFV,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)¹⁾ 산업 규격 그룹 (ISG, Industry Specification Group)은 NFV 서비스 민첩성 향상을 위하여 LSO(Lifecycle Service Orchestration)를 이용한 CE 2.0(Carrier Ethernet 2.0)서비스와 관련하여 MEF(Metro Ethernet Forum)²⁾와 협력을 체결함
 - MEF의 LSO는 민첩성을 위한 구조적 프레임워크(architectural framework)를 제공하며, 자동화 및 상호연결 네트워크로 조정되는 연결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능이 있음
 - ETSI의 NFV ISG는 가상화된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 전달되는 단-대-단(end-to-end) 네트워크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함
 - 가상 인프라에서 상호운용적 CE 2.0 서비스를 위한 표준 개발에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함
 - 협약 체결 세부 사항
 - ① NFV + CE 2.0 유스 케이스(Use Cases) 공동 개발
 - ② NFV 산업 로드맵 내용에 이더넷 서비스 부분 추가 협의
- MEF 회장, 난 첸(Nan Chen)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

1) NFV (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):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. 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화해서 서버 단에서 구현하는 기술.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사업자 통신망 장비의 기능들을 가상화하여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높이므로 하드웨어 장비를 줄일 수 있음 [출처: TTA용어사전]

2) MEF(Metro Ethernet Forum): 43개국에 본사를 둔 220여명 회원으로 구성된 산업 협회로서, 800억 달러 이상의 캐리어 이더넷 서비스의 세계시장을 주도하며, CE 2.0, SDN, NFV를 포함한 제 3 네트워크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LSO(Lifecycle Service Orchestration) 표준 전반을 규격화하는 단체임. MEF의 대표 상품으로는 서비스, 장비, 전문가들을 위한 표준, 운영 체계, 인증 프로그램 등이 포함 된 CE 2.0이 있음. (홈페이지: <http://www.mef.net/>)

- MEF 이사회 및 ETSI NFV ISG 의장단은 양 기관이 네트워킹 환경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인정하고, 서비스 제공자 및 최종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LSO/NFV 관련 표준 개발 협력에 합의하였음. MEF는 NFV를 위한 산업규격(표준)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, 오는 분기에 협력 작업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함

■ ETSI NFV ISG 의장, 스티븐 라잇(Steven Wright)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

- 오늘날 산업은 상당히 역동적인 소프트웨어 환경 안에서 NFV, LSO, SDN 기술 및 관련 표준 개발로 더 민첩한 네트워크 개발 및 혁신이 가능함. 이에 MEF 의장단은 그 역할이 LSO를 통한 단-대-단 이더넷 서비스(end-to-end Ethernet service) 생명주기 자동화하는 것임을 인식하고, NFV 기술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더넷 서비스의 민첩성을 위해 MEF와 긴밀히 협력 할 것

2. ITU, 5G 연구 개발 및 표준화 작업에 초점

(Industry leaders focus on 5G research,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)

보도날짜 2015.10.14

출 처 ITU

사 이 트 http://www.itu.int/net/pressoffice/press_releases/2015/CM15.aspx#.ViR-BXnot9A

- ITU는 제7차 CTO 연례 회의에서 ICT 산업의 신(新) 동향 및 ITU 표준화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 성명(communiqué)을 발표함
 - 10월 12일~15일, ITU-T 전략 관리 담당 및 ICT 분야의 유망 기업 최고 기술책임자(CTO, Chief Technology Officers) 14인은 'ITU 텔레콤월드 2015'의 제 7차 CTO 연례회의에 참석함
 - 이번 회의에서 5G 연구 개발, 표준화 지원이 향후 5년 간 업계 최우선 순위가 될 것임을 재확인하며, 5G 시대로 접어들에 따라 업계 핵심주제인 유무선 모바일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서비스, 지식 정보 인프라(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), 오픈소스 솔루션 등 서비스 상호운용성에 대해 검토함
 - ITU의 사무총장 홀린 자오(Houlin Zhao)는 "전 세계가 지속 가능하고 탄력 성장 추세로 들어섬에 따라 ICT는 더욱 핵심 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, 9월 UN에서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'지속가능한 개발'을 위한 17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CTO가 스마트 시티, IoT 응용프로그램, 5G 시스템에 대해 인지해야 함"이라 언급함
- ITU의 5G 연구 개발과 그에 따른 표준화 관련 노력
 - ITU는 2012년 'IMT-2020년 및 그 후'라는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적 5G 연구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왔음
 - 현재, ITU-R은 5G 모바일 개발 관련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향후 ITU-T는 5G 네트워크의 유선 요소 기술 및 아키텍처를 소집하는 장(場) 역할을 수행할 것임
- 5G 시스템은 향후 2020년 부터 미래 통신 기초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, 가상화(Virtualization)는 서비스 요구사항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5G 네트워크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임

- CTO는 5G 분야의 핵심 네트워크 개념 및 구조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, 이 개선에 ITU-T 표준화가 기여한 정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IMT-2020 포커스 그룹(Focus Group)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
- 또한, 5G 표준 관련 지적재산권(IPR) 운영에 대한 잠재적 접근방법 연구 및 IPR과 오픈소스 솔루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IPR 분야의 전기통신표준화사무국(TSB,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) 애드혹(Ad Hoc)그룹의 최근 합의에 환영을 표하였음
- IoT를 포함한 유무선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서비스 상호운용성은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중요함
- CTO는 상호운용성 서비스가 고(高)품질, 양방향 서비스로의 확장된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며, ITU-T의 표준화와 음성 및 비디오 분야의 서비스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및 검사(testing) 등이 필요함을 언급함
- 특히, CTO는 IoT 공간에서의 상호운용성 문제의 극복을 강조하며, IoT 플랫폼이 각 수직적 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개발되기 때문에, ITU-T는 서로 다른 IoT 분야 간 상호운용성을 가능케하는 IoT 표준화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함
- CTO는 미래 ICT 인프라 설계 원칙의 핵심 구성요소는 '신뢰'임에 동의하며, 통신 시스템과 ICT의 신뢰 강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정보 사회 안에서의 상호작용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함
- '공유경제(sharing economy)'의 일환인 신흥 비즈니스 모델로 대표되는 IoT, 클라우드 컴퓨팅, 빅데이터 같은 분야에서 신뢰 구축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하여 CTO 회의에서 ITU-T에 지원하기로 함
- CTO는 가상화 인프라 요소를 구현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을 언급함
- 표준화와 오픈소스 커뮤니티 간 협력이 ICT 융합을 위한 미래 기동력을 제공할 것이라 밝히며, ITU-T에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,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, 클라우드 컴퓨팅, IoT 및 비디오 코딩 등의 주요 영역과 함께 ITU-T의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
- 이슈화된 특정 ITU-T 표준의 오픈소스로의 구현은 응용에 깊이를 더하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그 영향력을 높이게 될 것임

기타 소식

ATIS, All-IP 기반 솔루션 관련 로드맵 발표

- ▶ 출처 : <http://campaign.r20.constantcontact.com/render?ca=eaf8b726-0a5b-4acc-b94b-ee203e5f550d&c=a485cb00-94e9-11e4-b35c-d4ae5292c36f&ch=a58bc950-94e9-11e4-b3d1-d4ae5292c36f> (2015.10.08.)
- 2015년 10월 8일, ATIS는 All-IP 미디어, 제품, 서비스에 대한 특정 공공 안전 애플리케이션의 전환 개선을 위한 'IP 기반 솔루션 로드맵'을 마련함
 - 공공안전 산업 전반에 걸친 솔루션 정보를 공유하고, All-IP 전환에 의한 방향성 변화에 따른 통찰력을 제공함